

여정의 재구성을 통한 원도심과 유적지의 연계 방안 제안

- 울산 중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

Reconstructing the Journey : Design Approaches to Linking the Old downtown and Historical sites

- Based on the old downtown in Jung-gu, Ulsan Metropolitan city -

○박 규 명* 유 명 희**
Park, Gyu-Myeong Yoo, Myou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organic connection plan between the old downtown and the urban historical sites, which are cut off by the growth of the city. Until now, the development of the old downtown has only been fragmented by connecting the remains of the old downtown left like an island. The old downtown has a variety of history, and by forming a 'journey' to experience it, the old downtown and the historical sites were organically connected. Various historical sites are included in the journey, and people can experienc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old downtown during the newly proposed journey. At the center of this journey, an open storage was proposed to house relics excavated from the historical sites and relics unearthed throughout the city, and excavation experience at the historical sites was made possible, so that the history of the original downtown could be experienced through various types of experiences.

키워드 : 시간성, 유적지, 원도심 활성화, 여정의 재구성

Keywords : Temporality, Historical site, Activation of the Old Downtown, Reconstruction of Journe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도시들은 원도심의 도시 구조 위에 덧씌워지고, 확장되며 성장했다. 오늘날의 도시들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원도심의 구조가 훼손되면서, 원도심을 구성하던 일부 장소들만 ‘유적’으로 지정되어 섬처럼 존재하게 되었다. 최근 문화관광형 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지면서 원도심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원도심 개발 방안은 섬처럼 남은 일부 장소를 잇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편적인 잇기에 불과한 현재 원도심의 유적지 활용 방안을 탈피하여 원도심과 유적지를 ‘여정(旅程, Journey)’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대상으로 읍성의 도시 구조 위에 덧쓰며 만들어진 ‘울산 중구 원도심’을 선정하여 여정의 재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유적과 현재의 도시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탐구하여 앞으로 지방 도시의 원도심 개발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대상지의 선정

울산 중구 원도심은 과거 ‘읍치(邑治)’를 위해 세워진 ‘울산 읍성’ 위에 만들어졌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성벽이 사라졌지만, 도로 구조는 그대로 남아 지금도 원도심의 주요 간선도로로 쓰이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겪으며 확장된 도심지는 변천을 겪으며 과거의 여러 흔적이 남았다. 울산 중구는 이러한 유적지를 재정비하는 한편 이를 ‘읍성 둘레길’이라는 방법을 통해 여정을 구성하여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여정은 원도심 내 특정 장소의 단순한 연결에 그치고 있다.

이에 울산 중구 원도심의 중심 공간인 ‘울산 객사터’를 중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도심과 유적지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대상지에 원도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여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위한 중심 공간으로 ‘개방형 수장고’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지의 특성 및 여정의 재구성 전략

연구 대상지인 울산 중구 북정동 일대는 조선조에 축성된 ‘울산 읍성’ 안쪽 영역으로 추정되고, 조선조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며 ‘울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부연구원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Ulsan, bbleu@ulsan.ac.kr)

산'이라는 도시의 원형이 되었다. 울산 중구청은 울산읍성의 유구를 활용하여 원도심의 주요 장소 간의 연결을 꾀하고 있지만, 읍성의 주요 유적지인 '동헌 및 내아', '울산 객사'와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원도심에서 유적지는 섬처럼 분리되어 있다. 특히 대상지의 중심에 있는 '울산 객사' 터의 경우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문화재 발굴 조사 중 발굴되었지만, 복토 후 10년째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2.1 원도심에서의 여정이 지나는 의미

앞서 밝혔듯이 현대의 도시는 여러 시대에 걸쳐, 흔적 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의 경우 과거, 현재의 공간이 공존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시대의 공간이 원도심에 산재해 있어, 각각의 공간들이 섬처럼 존재하고 있다. 산재한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통시적 도시 구조를 고려한 '여정'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여정은 단순한 물리적인 연결과는 달리 원도심이 내포한 여러 시간성을 도심 내의 여러 공간을 동선과 시선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2 대상지 연구 및 분석

1) 울산 읍성

울산 중구 원도심의 유래는 '울산 읍성'에 찾을 수 있다. 울산 읍성은 고려 말의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고려 우왕 11년(1385년)에 축성이 시작되었고, 완성¹⁾하였으나 그 규모나 위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울산 읍성의 경우, 조선 성종 7년(1476년)에 축성을 시작하여 그 이듬해 완성하였고, 성종 12년(1481년)에 개축하였다. 이 읍성의 경우 평지에 만들어진 성으로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비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읍치(邑治)의 공간과 생활의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의 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울산 읍성의 경우 읍성의 중심지에 동헌과 객사, 향청 등 30여 개의 관아가 있어, 읍성 안쪽 즉 현재의 울산 중구 북정동 일대는 조선조부터 이미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벽은 사라졌지만, 읍성의 남문과 동헌과 객사를 잇던 대로와 동문과 서문을 잇던 도로는 원도심의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과거 울산의 원도심 일대가 구성되었다.



그림 1. 울산 읍성 추정 배치도(출전 : 김현규, 한삼건, 2000, p770 참조, 재작성)

2) 울산 객사와 (구) 울산초등학교

울산 읍성의 중심에는 읍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헌과 객사가 있었다. 현재 남아 있는 '울산 동헌'은 조선 숙종 7년(1681년)에 세워진 후 두 번의 중건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울산 군청으로 쓰이다가 1981년 도시공원으로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울산 객사의 경우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문헌 기록과 일제 강점기 때 촬영된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구) 울산초등학교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울산 객사는 언제 처음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종 8년(1677)에 중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이전부터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기 '울산 공립 보통학교'의 교사(校舍)로 쓰이다가 교사 신축을 위해 1934년에 철거되었다²⁾. 그 후 울산 객사 터 위에는 울산초등학교가 존속하다가 2015년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교사가 철거된 후,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객사의 터가 발굴되며 (구) 울산초등학교 운동장 일대에 울산 객사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객사 복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객사 터는 복토(復土) 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울산 동헌



그림 3. 구 울산초등학교 교사



그림 4. 울산 객사, 학성관 정면 (출전 : 김윤경, 강영환, 2004, p735)

3) 북정동 재개발 사업

오랜 시간 울산의 행정 중심지로 역할을 해오던 울산 중구 북정동과 성남동 일대는 산업화 시기 시가지가 확장되었지만, 울산의 중심지가 울산 남구 일대로 옮겨가며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다. 원도심의 인구 감소와 상권 약화, 주거 노후화 등의 문제로 2000년대부터 이 일대 재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울산 중구 B-04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그림 6 노란 영역)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울산 중구 B-04 재개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울산 객사 터를 중심으로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동헌까지를 역사문화공원(그림 6 초록 영역)으로 조성하고, 그 주변을 울산 읍성의 성곽이 있던 형태를 따른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이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대규모의 도시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울산'이라는 도시의 원형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¹⁾ 김현규, 한삼건, 일제시대 울산읍성의 공간구조 변화 과정 : 토지공부의 분석을 통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6권, 제7호, p.770

²⁾ 김윤경, 강영환, 울산객사의 해체과정과 원형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계획계 제24권 제2호, p.734

2.2 유적지와 다양한 시간의 층위

앞서 밝혔듯이 주요 대상지인 ‘울산 객사 터’의 경우에는 ‘울산 객사’, ‘(구) 울산초등학교’가 다양한 시간의 층위를 이루며 쌓여 있다. 객사의 유적지는 복토된 상태이지만, 객사의 유적지를 드러낸다면 원도심의 과거를 드러내어 원도심이 내포하고 있는 시간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주요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북정동 재개발 구역의 도로 구조는 읍성의 구조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정을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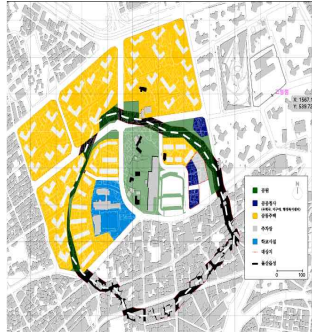


그림 6. 울산 중구 B-04 재개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출전 :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7-119호 참조, 재작성)



a) 재개발 구역 내 주택



b) 재개발 구역 내 골목길

그림 7. 울산 중구 B-04 재개발 구역(2025년 3월 촬영)

2.3 여정의 재구성 전략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시대를 거치며 ‘울산’이라는 도시의 원형을 지키고 있던 북정동 일대는 도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수장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비어 있는 ‘울산 객사 터’에 객사 유적과 울산 관내에



그림 8. 울산 객사 터 유적지(출전 :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김지연, 2017, p17 참조, 재작성)

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제안한다. 이 개방형 수장고를 통해 여정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객사 유적지를 둘러싸는 배치를 통해 객사 유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느끼게 만들어, 원도심의 시간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복토된 객사 유적을 드러내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여정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원도심의 여러 유적이 객사 유적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원도심의 의미 있는 장소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셋째, 개방형 수장고는 유적과 원도심을 잇는 매개체로서 여러 시간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한다.

3. ‘여정(旅程)’의 재구성 방안

3.1 ‘에워싸는’ 배치전략

객사 유적지 바로 옆에 있는 울산시립미술관의 배치를 활용하여 대상지를 에워싸는 매스를 통해 객사 유적을 바라보고 여정을 구성한다. 객사의 유적을 덮고 있던 복토를 제거하여 유적지 일부를 드러낸다. 수장고를 통해 에워싸여진 공간은 복토된 채로 남아있는 공간과 복토를 제거한 공간으로 나뉘어진다. 이곳은 에워싸임을 통해 ‘광장’이 되고, 도시의 여러 프로그램이 벌어지는 장이 된다.



그림 9. 개방형 수장고 배치 평면도

3.2 단면조작을 통한 다층적 시간성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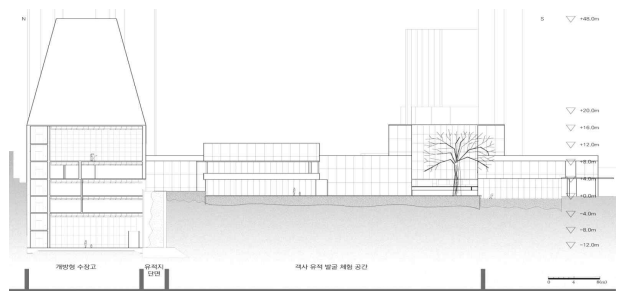


그림 11. 개방형 수장고 남북 단면도



그림 10. 발굴체험공간 투시도

복토된 채 남아있는 공간은 울산 원도심에 부족한 ‘광장 공간’을 제안하여 개방형 수장고 옆에 있는 울산시립

미술관의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야외 전시 또는 공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울산 원도심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북도가 제거된 유적 공간은 객사의 유적이 그대로 드러내어 ‘울산’이라는 도시 원형의 중심인 ‘객사’의 흔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적 일부를 발굴 체험 공간으로 제안하여 바라보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하에서 시작되는 수장고는 객사 유적의 지층을 드러내어 이를 수장고의 배경, 기획 전시 공간의 배경으로 구성하여 여러 흔적이 중첩하여 여러 시간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3.3 동선과 시선을 이용한 경험의 흐름 재조직

현재 울산 중구 원도심의 중심 공간인 문화의 거리에서 울산 동헌, 울산시립미술관, 북정동의 골목길에서 시작된 여정은 울산 객사 터에 계획된 개방형 수장고로 모이고, 이곳에서 객사의 흔적과 울산의 흔적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수장의 공간으로 여정이 이어진다. 원도심의 산재한 장소들이 원도심 내의 시간 순서에 따라 문화의 거리-북정동 골목길-개방형 수장고-객사 유적지-동헌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여정을 만든다. 유적지를 둘러싼 매스의 여러 층에 객사 유적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흔적을 수장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배치하여, 수장고를 다니는 여정에서 객사 유적, 북정동의 흔적을 다양한 높이에서 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울산 원도심의 유적지뿐만 아니라 울산 전 지역의 다양한 유적들을 볼 수 있는 울산지역의 중심 문화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울산시립미술관과 지하를 통해 연결하여, 미술품 수장고 역할을함과 동시에 객사 유적의 단면이 배경이 되는 독특한 기획 전시 공간을 통해 독특한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울산’이라는 도시가 성장하며 발생한 도시 구조의 변화로 단절되어 있던 울산 중구 원도심과 도심의 주요 유적지인 ‘울산 객사’를 ‘여정(旅程)’의 재구성을 통해 연계하고자 했다. 원도심을 체험하는 기존의 여정은 원도심이 산재한 의미있는 공간을 단순히 연결하

여정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울산 원도심의 역사적 맥락과 도시 구조에 영향을 미친 ‘울산 읍성’의 배치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 읍성에서 읍치의 중심 역할을 하던 울산 객사 터를 활용한 개방형 수장고를 제안하여 원도심과 유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써 원도심 내 시간의 층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제안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객사 유적지를 둘러싸는 배치를 통해 객사 유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느끼게 했다. 둘째, 객사 공간의 유적을 평면, 단면적으로 드러내어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여정을 구성했다. 셋째, 개방형 수장고에서의 시선과 동선을 통해 유적과 원도심, 그리고 유적 둘레의 새 도시조직을 잇는 매개체로써 여러 시간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도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원도심의 역사적 맥락을 활용하여 원도심이 품고 있는 ‘시간성(Temporality)’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정(旅程)’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도심의 유적만이 아니라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거나 생겨나는 도시조직과 삶의 충돌을 주제로 여정을 재구성하는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현규, 한삼건, 일제시대 울산읍성의 공간구조 변화과정 : 토지공부의 분석을 통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6권 제7호, 2000.
2. 김윤경, 강영환, 울산객사의 해체과정과 원형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계획계 제24권 제2호, 2004.
3. 김현규, 한삼건, 일제강점기 울산지역 성곽도시 구성요소의 변화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 울산읍성과 경상좌병영성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2호, 2013.
4. 김성환, 건축 공간 생성을 위한 도시의 형상학적 구축에 관한 연구 :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동명대학교원 건축학과, 2015.
5. 백지웅, 건축가 이종호의 기억 개념과 기념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9권 제1호, 2017.
5.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김지연, 울산읍성 객사,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학술연구총서 제95집, 2017.



그림 12. 개방형 수장고 단면도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원도심의 다양한 시간성을 반영한